

자립경제의 승리를 안아온 애국현신의 장정

김철의 로동계급을 대고조의 선봉에 내세워준 위대한 령도 (1)

나라의 민족적 한 데 아우거기자인 김철에 주제 협동선제가 확립되었다.

엄마친 형령직대고조의 앞에 서서 기운을 차내며 끌어오는 경계체

원형기조를 찾으신 경계에는

장군님께서는 주제공업의 유통을

시켜 거창하게 일찍이 주제를 향

로에서 물류를 날려며 흑토처럼

분위기는 주제물을 바라고 먼

주제성 관계를 원하고 그 경

간을 날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

는 데 하여 커단반을 표시

하였다. 그리고 이 모든 흥보경

이 대고조의 전철에서 계속 긍정

같이 내밀었을 때 대한 크나큰 일

을 안겨주었다.

경에 하는 장군님의 민족을 더

시한번 더 대비하여 기회를 높이

는 김철의 흥보경.

그들은 타다니온 복부의 청의

은 푸심은 기세로 전국에 소리치며

웃지 않으셨던 그들이

김철의 흥보경이었다.

우나나 그 그려져 하였던 새에 봄

맞이한 경찰로 경찰로의 심정은 유

모든 자령계의 대승을 미하던

비단의 원용이 되어버렸다.

바로 그 엄마친 위대한 장군님께서

한에게 하여 주께 가는 이 시각 김철

로동계급은 드러운 감사의 정에

나를 시울 죄에 경애하는 장군님

의 행동과 더비역의 한걸음 걸어

있지 못 험의 물에 험의 물을 강

회복이 끝이 되었고,

위대한 라자 김철동지께서는

다시 한 번 친히 저히 하였다.

『감성대국 건설에서 위대한

전철로국민이 리고 있는 지금

금으로 대고조에 대한 기대

를 뛰어 냅니다. 기업소의 당원

들과 조동자를 존엄한 혁명의

길에서 대하고 다른 흑물들의

정신으로 품격을 지고자 대고조의

전철에서 계속 질질같이 내밀었

아 합니다.』

— 빙 — 빙 —

주제 99 (2010)년 세대의

종소피가 온 나라 강에 메아리치

는 김철의 로동계급을 품에

안고는 한 걸음 걸어온

</div

총공세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희천발전소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

조선인민내무군정창복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

전투적위력 높이 떨치는 용감한 부대

경계강성건설의 최전선인 회
전선에서는 조선인민내무군 정
창복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의
임업은 물론, 예기적 기록과 기록
장을 하고 있다. 이것은 경애하는
장군님께서 절실히 시키시는
장적의 실적으로 염려에 이어 울려내고
드세간 공격전, 벌써 언제 공
사에서 어떤 하루도 용산사방의
9·6 평화를 끊어버렸다.

위대한 평도도 자
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
지적하였다.

『대고인의 일길도 선군은
로 알고 강성으로 대로도
총대의 위엄으로 염려는 것이
당의 의도입니다. 우리는 선
군현리를 끌고 강성대국을
향하여 폭풍을 대로 끌고

나타나겠습니다.』

얼마전 미강단계에 들어선 후
2호 발전소 연재건설장을 찾았을 때
장군님께서는 전선에서 일
하는 군인건설자들이 전선에 대한
열정으로 전선을 찾았을 때

부신 소로 주진기고되

는데 대하여 대안을 제

표 시하시였다.

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

부대는 지난 기간

사회주의전선에서 빛

나는 위원회, 혁신 영

광스와 전선을 거쳐

고았던 것은 부대,

용감한 부대라고 하시

면서 회전발전소건설장

에서도 신봉대, 충격

의 역할을 훌륭히

수행하였으며 부대

인들의 자랑한 위용은

강성대국건설사의 더

워 힘과 밤낮없이

하고 말하였다.

경애하는 장군님의

크나큰 임을 또다시

반대군에게는 전선

마감 단계에 들어선 회전발전소

연재건설장을

모신 활동은 영광으로 우

리 군인들의 가

슴가슴은 크나

큰 적경과 흥분

으로 새롭게

어려지고 있다.

이제는 꿈만 현실이 되는

그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탕 없는

사랑과 밀을 끌어내고 고무한

우리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 군

인정신, 경계력을 강조하

며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

있었지만 전투적으로 퇴진

하면서 이어지는 전투적인

경우에는 전투적인

